

생체권력 또는 공간의 미시정치학

생체권력 : 지식의 차원(지식권력)을 넘어서 삶과 생명을 대상으로하는 권력

주체의 행동과 사고는 동일시 이전에 공포와 잔혹, 금지와 강제를 통해 규정되며 동일성이란 그것을 개개인이 받아들인 결과를 지칭할 뿐이다.

동일시 : 주체는 기호적 표상세계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정의된다. 주체의 동일성은 이러한 구조화된 표상체계인 언어의 세계, '타자의 담론'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정의된다는 라캉의 주체형성의 오이디프스 이론.

이는 '정상적'인 개인이 사회질서 안에서 재생산되는 매커니즘을 보여준다.

교단과 교탁은 성직자와 일반 신도 사이의 단절과 위계를 표시하던 장치를 학교안에 도입한 것을 뜻한다. 높이 선 자로서 교사를 우러르고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성의 대행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배치, 동시에 학생들을 감시하며 통제하려는 시선이 방사되는 지점, 그리하여 교사가 보든 않든 스스로 교사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만드는 장치, 이러한 배치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내지 학교가 규범으로 정의한 규칙에 따라 훈육되고 올바른 '주체'가 되기 '습속의 도덕'을 자신의 신체에 새기게 된다.

이런점에서 학교/교실의 배치는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전형화된 태도의 집합을 형성시키며 어느정도 일관된 행동, 삶의 도식을 작동시킨다. 그것은 근대적 행동방식과 근대적 태도를 학생들의 신체에 새기는 권력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간적 배치가 야기하는 효과를 권력과 결부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하지 않을까? 계몽주의적 도식에 따른 교사와 학생간의 일방적인 관계와 그 관계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도식은 정녕 불가피한 것일까? 근대의 한계가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되고있는 지금이라면 혹은 수많은 학생들이 성공하는 소수를 위해 더 이상 들러리를 서기를 거부하고있는 지금이라면, 그리하여 학교가 학생들을 설득하는데 번번히 실패하고있는 지금이라면, 저 일방적인 공간의 배치를 변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